



교회와 세상 간의 경계에 서다

주인공 현순의 어머니는 다른 자식을 놔두고, 오직 현순에게만 값비싼 '밍크코토'를 물려줬다. 고령의 어머니가 입던 옷이라 중년에게 그리 잘 어울리진 않는다. 하지만 투박하더라도 어머니의 사랑과 이에 대한 의식이 상징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거기다 한겨울 우유배달을 할 때 그만큼 따뜻한 건 없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팔아야 요긴하게 사용한다. '밍크코토'는 자식을 돌보는데 헌신적인 어머니의 대물림된 분신과도 같다 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영어제목은 난데없이 기독교 법세가 물씬 풍기는 <Jesus Hospital>이다. 영화 속에서 두 가지 가치가 함께 병행되고 있는 까닭이다. 한편에서는 밍크코토로 대변되는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며 가족 갈등의 화해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가족들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두 가치가 주로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서 전개되는 까닭에 감독은 'Jesus Hospital'이란 이름을 지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가족이야기라는 일반적인 내용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서로 맞물리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기독교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고, 영화 속에는 신앙적 이해가 깊이 들어 있는 장면들이 적지 않다. 표면상으로는 가족과 기독교 신앙 두 요소가 함께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의미나 가치를 생산해내는 측면에서는 융합보다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다. 기독교세계관의 바탕에서 영화 속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 단지 관찰자 입장으로 기독교 가정 내 갈등을 바라보는 듯한 연출 기법을 보인다. 따라서 <밍크코토>를 기독교영화라고 확신하기도, 아니라고 단언하기도 쉽지 않다. 기독교가정의 흥미로운 사건을 전제시키는 과정에서 신앙에 가까운 쪽으로 영화를 끌어가는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 간의 경계에 위치해있는 영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당할 듯싶다.

크리스천 가족 내 두 언어 이야기

신인가, 이상철 감독의 영화 <밍크코토>

화려하지만 무거운, 따뜻하지만 잔인한... 당신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왔다. 비사실론 관계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결과는 비슷했다. 가족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남성의 아동양육참여 정도와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가족관계의 질이 향상될수록,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기도 훨씬 쉬워지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교회가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을 회복케 하는 핵심적인 통로로 쓰임 받으면 좋겠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교회는 궁극적인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가족학의 활용기지가 되어 가정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 학계와 교회의 협력 모델이 나온 바 있다. 남녀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대학의 스캇 스텐리 박사팀에 의해 개발되었다.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현재는 다양한 곳에서 실행되고 있다. 사실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기독교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었는데, 교회라는 허브(hub)를 통해 그 효과는 배가되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 보다 관심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족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 나아가 그들을 교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것 등이 같은 목표를 이루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한국 가족은 지금 큰 변화를 겪는 중이다. 가정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해체 위기의 불안정한 가정도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에 관한 규범이나 역할도 변화되고,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가족을 하나로 있는 제도나 이념은 너무 약해져서 찾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나는 가족학의 전문가로서 정말 귀히 쓰임받기를 소망한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가족의 결속과 긍정적인 변화를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 참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다. 6



김정은 현재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브런디외인 컬러스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Brandywine)의 인간발달 및 가족학(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가정학 학사와 석사를 받은 후 도미하여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다문화 가족과 모성을 주제로 가족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 연구분야는 다문화 가족, 부부관계, 남성과 아버지, 질적연구방법론이다.



하늘의 언어와 지상의 언어

〈인코르트〉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고 민스런 질문을 던진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몇 달째 인 명치로에 의존한 채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니, 이를 두 고 벌어지는 자식들 간의 다툼과 용서 그리고 화해를 보여주고 있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를 두고 벌어지는 연명치료 논쟁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일이다. 하 지만 〈인코르트〉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상 황을 전개시킨다. '하늘의 언어와 지상의 언어가 대립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가에 대한 고민이 서려있는 것이다. 영화에서 하늘의 언어를 구사하는 이는 주인공인 현순(황정민)이다. 가 정 형편 때문에 우유배달을 하며 여척스럽게 살고 있지 만, 다른 형제들과 달리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녀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는데, 기도 중 하나님으 로부터 어머니가 깨어나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주장 한다. 하지만 형제들은 생활이 어렵다며 어머니의 병 원비 한 톨 내지 않는 현순이 미울 뿐이다. 회복이 불 가능하므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 시의 소견과 병원비가 부담스러웠던 가족들의 필요는 '지상의 언어'로 나타난다. 이 부분은 영화평론가 이영 진 씨의 칼럼에서도 적절하게 표현되고 있다. “〈인코르 트〉는 하늘이 내린 십계명과 지상에 뿌리박힌 십계명 을 대립시킨다” (출처: 씨네21)



하늘의 언어라는 용어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알려진 김두현 감독의 책 '하늘의 언어(무장)에서 차용했다. 김두현 감독은 이 책을 통해 방언의 신비와 유익을 재조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황에는 방언이 은사의 하나로 분명히 나와 있고(고 전 14장), 방언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하나 님이 말씀하셨다면서 생명 연명의 중단을 막는 가족이 나오는 상황은 참으로 난감하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를 기독교 안에서 무조건 비윤리적인 행위로만 볼 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이다. 고신대학원 신원하 교 수는 그의 책 '교회야 꼭 대답해야 할 윤리 문제들'에 서 다음처럼 말했다. "죽음을 재촉하는 능동적 인락사 도 문제가 있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다칠 죽 음을 지연시키는 인위적 행위에 연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한 것이다(롬14:8). 또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 한 삶의 시작으로 보는 만큼, 환자와 가족들을 세우고 통 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가치관이 다른 가족 내 두 세력의 갈등은 반전을 거 듭하며 전혀 의외의 결과를 낳는다. 현순을 제외한 나 머지 가족들은 어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에 힘을 모은 다. 하지만 현순의 방언을 통한 신비한 예지력에 무릎 을 꿇고 만다. 그것은 남동생이 교회 헌금을 유용한 사 실에 대한 언급이었고, 상황은 급변하여 현순의 입장 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듯 보였다. 신비주의 형태 를 띤 종교개혁에 거부감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자칫 위 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화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하늘의 언어와 지상의 언어 간에 화목을 도모한다.

첫째로 그동안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주인공이 '하늘의 언어'를 통해 반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가족에 대 한 방언을 전달하며 신앙의 권위를 내세우지만, 그것 이 가족들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공격적 행 태였음을 깨닫게 된다. 현순이 자신의 방언을 해석해 주는 통번역자의 입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가라김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요한2:9-11)

방언의 신비성이 이해할 수 없는 권위를 내세우며 가 족공공체를 파괴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가족의 사랑과 화합'이라는 현실 사회의 가치를 세워주고 있다. 이렇 으므로 영화가 자칫 이단이나 사이버에 빠져있다는 비 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는 대목이다.

둘째는 '지상의 언어'인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을 통 해 주인공이 사랑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현순 은 출산을 앞둔 자신의 딸 수진(한송희)이 급히 수혈을 필요로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다. 수진어와 같은 혈 액형을 가진 사람은 연명장치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어 머니뿐. 어머니 피를 수혈하면 딸은 살지만, 허약한 상 태의 노모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수혈 여부는 오직 가족공공체의 일치된 의견에 달려있다. 살려달라고 애 원하는 사위... 현순은 이전과 정반대로 가족의 동의 를 구하는 처지로 역전되고 만다. 그동안 어머니 생명 엔 관심도 없던 가족에게 자주를 퍼부었지만, 그들의 사랑과 도움이 절실했던 것이다.

손녀는 할머니의 피를 수혈 받아 아기를 무사히 출산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설정은 결국 때를 이기며 생명을 키우는 사랑공공체로서의 가족 의미를 되새겨준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언어와 '지상의 언어'를 모두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방언을 비롯한 모 든 은사들은 교회의 탁을 세우는 데 쓰여야 한다(고전 14:12). 마찬가지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 스 임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공체를 온전케 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강진구 고신대 컴퓨터영상교학과 교수이며 영화평 론기이다. SFC문화연구소장, 기독교미디어카데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강연과 각종 미디어 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역을 활발위 적으로 펼치고 있다.

